항해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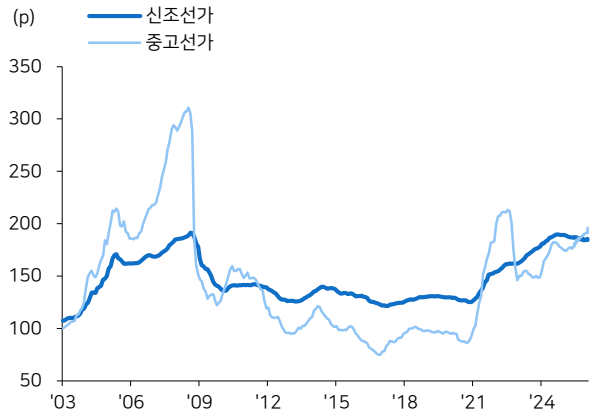
meritz 메리츠증권

2026. 2. 3 (화)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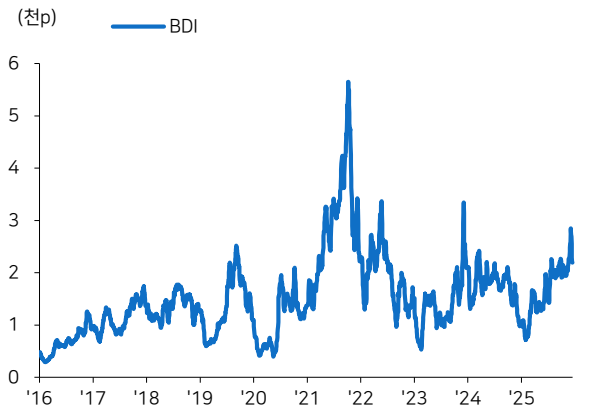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4.3p (-0.5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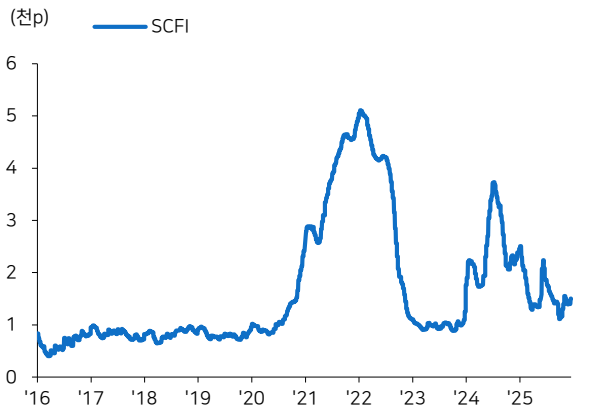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481.0달러 (-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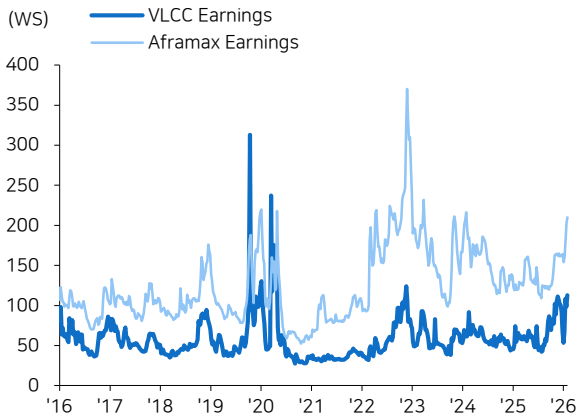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148.0p (+146.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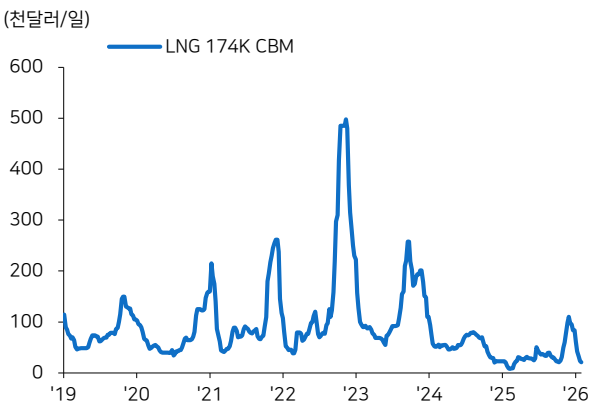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316.8p (-141.1p WoW)



VLCC Spot Rate 112.8WS (+14.4p WoW)



LNG Spot 운임 21.0천달러 (-2.5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Venture Global signs EPC deal for second phase of LNG project — **Upstream**

Venture Global이 Calcasieu Pass 2 LNG 수출 프로젝트 2단계와 관련해 Worley와 EPC 계약을 체결했으며 해당 계약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를 통해 확인됐다고 전해짐. Calcasieu Pass 2는 2024년 6월부터 건설이 진행 중이고 2024년 10월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전면 수출 승인을 받았으며, 2단계 FID은 2026년 중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알려짐. 1단계는 연간 14.4million 톤, 2단계는 연간 5.6million 톤의 생산능력을 갖출 예정이며 루이지애나 설비의 최대 처리능력은 연간 28million 톤으로 보도됨. (https://buly.kr/7QNcEGC)

Sonangol inks first LNG newbuilding order for Angola fleet replacements — **TradeWinds**

앙골라 국영 석유회사 Sonangol이 Angola LNG 프로젝트 선대 교체를 위해 최대 3척의 LNG 운반선 신조 발주에 나섰으며 HD한국조선해양이 LNG 운반선 1척을 3,575억 원에 수주했다고 보도됨. 해당 선박은 HD현대삼호 조선소에서 건조돼 2028년 6월 말 인도될 예정이며 계약에는 추가 LNG 운반선 2척에 대한 옵션이 포함됐다고 알려짐. Sonangol은 2011년 건조된 160,000cbm급 증기터빈 LNG 운반선 3척의 교체와 배출 감축을 추진 중이며 Angola LNG 프로젝트 지분 22.8%를 보유한다고 보도됨. (https://buly.kr/C0BJjWE)

Qatar's LNG fleet set to expand to 200 vessels — **TradeWinds**

LNG 2026 개막식에서 카타르 에너지 담당 국무장관이자 QatarEnergy 최고경영자인 Saad Sherida Al-Kaabi가 밝힌 바에 따르면 카타르는 LNG 운반선 선대를 200척까지 확대 중이며, 128척 규모의 사상 최대 선박 건조 프로그램을 추진해 이미 38척을 인도했고 향후 3주마다 1척씩 인도할 계획이라고 전해짐. 그에 따르면 향후 10년 내 카타르는 전 세계 LNG 생산의 40%를 담당하고 2030년경 LNG 공급 부족이 발생할 전망이며, 중국 · 인도 · 동남아와 AI 데이터센터가 수요를 견인할 전망이라고 알려짐. (https://buly.kr/5UJHRT8)

HD 현대, 'LNG 2026' 참가..."미래 전략 선보인다" — **뉴시스**

HD한국조선해양과 HD현대중공업이 카타르 도하에 위치한 카타르 국립 컨벤션 센터(QNCC)에서 열리는 LNG 2026에 참가해 차세대 가스선 기술을 공개한다고 보도됨. 전시회 기간 동안 HD현대는 풍력 보조 장치 적용 LNG운반선, 초대형 에탄운반선, 초대형 LPG운반선을 선보이고 Bureau Veritas로부터 20,000㎥급 LNG벙커링선 기본인증(AiP)을 확보하며 Lloyd's Register, DNV, ABS, GTT와의 공동 개발 및 기술 협력을 확대한다고 전해짐. Exxon Mobil, Shell, TotalEnergies, QatarEnergy 등 글로벌 에너지 기업이 대거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 HD현대는 친환경 규제 강화 흐름에 대응한 LNG · 가스선 기술 경쟁력을 앞세운다고 알려짐. (https://buly.kr/DEacPvc)

중국 조선업, 지난해 수주·수주잔량·건조량 세계 1 위 유지 — **파이낸셜뉴스**

중국 공업정보화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중국의 조선 건조량은 5,369만DWT로 전년 대비 11.4% 증가하며 세계 건조량의 56.1%를 차지했다고 보도됨. 신규 선박 수주량은 10,782만DWT로 세계 시장의 69.0%를 기록했고, 2025년 12월 말 기준 수주잔량은 27,442만DWT로 전년 대비 31.5% 증가해 글로벌 조선 시장의 66.8%에 달했다고 전해짐. 중국은 지난해 양대 국영 조선사인 중국선박공업그룹(CSSC)과 중국조선중공업그룹(CSIC) 통합 이후 3대 지표에서 16년 연속 세계 1위를 유지 중이며, 중국선박공업행업협회 부회장 리얀칭은 향후 3~4년치 물량을 이미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고 알려짐. (https://buly.kr/FLZiC0u)

HD 현대, 모로코 조선소 가시권..."거점 다변화 속도" — **뉴시스**

모로코 카사블랑카 신규 조선소 운영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가운데 HD현대중공업이 현지 엔지니어링 기업 Somagec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최종 사업자로 유력하다는 관측이 현지 언론을 중심으로 보도됨. 모로코 국립항만청이 추진하는 21만㎡ 규모 아프리카 최대 조선소는 향후 30년간 운영권이 부여되며 선박 건조와 군함 MRO 수행이 가능해 HD현대가 선정될 경우 해외 생산 거점 다변화 전략이 아프리카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전해짐. HD현대는 필리핀 수빅 조선소 임차, 베트남 HD현대에코비나 출범, 인도 코친조선소 협력과 Tamil Nadu 합작 조선소 추진에 이어 Morocco 거점 확보를 통해 원가 절감과 신흥시장 선점을 동시에 노린다고 알려짐. (https://buly.kr/1GL5iU2)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